서울 강서구 등촌동

전지현 차기작 첩보 멜로극 '북극성' 출연에 끄덕끄덕



뉴시스

1981년생인 전지현(본명 왕지현)은 1996년 중학교 3학년 때 모델 일을 하던 친한 언니를 따라갔다가 뚜렷한 이목구비와 큰 키로 캐스팅 돼 1997년 하이틴 잡지 '에꼴' 표지 모델로 데뷔했다.

그해 광고 4건을 맡아 'CF 여왕'이란 별칭을 얻었다. 그중 1999년 출연한 삼성전자 마이젯 프린터 광고가 많은 화제를 모았다. 신세대들의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표현한 광고에서 늘씬한 팔과 다리로 시원시원한 일명 '테크노댄스'를 추며 이목을 사로잡았다. 클럽에서 매일 5시간씩 테크노 댄스를 연습했다고 알려져 노력이 빛을 봤다.

'테크노 여신'으로 등극한 뒤 광고계의 잇따른 러브콜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여전히 톱 CF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광고 개런티로만 1년 기준 1건당 약 10억 원 넘는다고 알려져 'CF 여왕'이라는 별칭이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했다.

1998년 SBS 드라마 '내 마음을 뺏어봐'


빌딩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5-42

로 본격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이듬해 박신양 상대역으로 출연한 영화 '화이트 발렌타인'으로 스크린도 데뷔했다. 이 영화로 백상예술대상 여우신인상, 같은 해 드라마 '해피투게더'로 SBS 연기대상 여우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00년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했고 그해 이정재와 함께 영화 '시월애'에 출연해 대종상영화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연기력을 입증했다.

2001년 개봉한 '엽기적인 그녀'에 차태현과 함께 출연해 스타덤에 오른 그는 이 영화로 6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기록과 488만 명의 관객을 모아 신드롬을 일으켰다. 순정만화에서 방금이라도 튀어나온 것 같은 청순한 외모를 가졌지만 이에 어울리지 않는 악동처럼 사고를 치는 모습은 관객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영화로 '제39회 대종상 시상식'에서 최연소 여우주연상과 여자인기상을 동시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2003년 영화 '4인용 식탁', 2004년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2006년 '데이지', 2008년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2009년 '블러드', 2011년 '설화와 비밀의 부채' 2012년 '도둑들', 2013년 '베를린' 2015년 '암살' 등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며 꾸준한 연기 활동을 이어갔다. 그중 '도둑들'과 '암살' 두 편이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천만 배우 타이틀을 달았다.

2013년 말에는 1999년 '해피투게더' 이후 14년 만에 '별에서 온 그대'로 돌아와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다. 코믹하고 털털한 성격의 한류 톱스타 천송이 역을 연기해 도민준(김수현 분)과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달콤발랄한 모습으로 표현했다. 뛰어난 연기력과 화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제2 전성기를 맞았다.

2016년 SBS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아신 전', tvN '지리산' 등에 출연한 전지현은 차기작으로 첩보 멜로물 드라마 '북극성'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북극성'은 정체성을 잃고 살던 스파이들이 자신을 찾는 이야기를 담았으며 '작은 아씨들' 정서경 작가와 김희원 감독이 두 번째로 의기투합해 주목된다.

CF와 배우 활동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한 전지현은 지난해 2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대로변의 상가 건물 한 동을 505억 원에 매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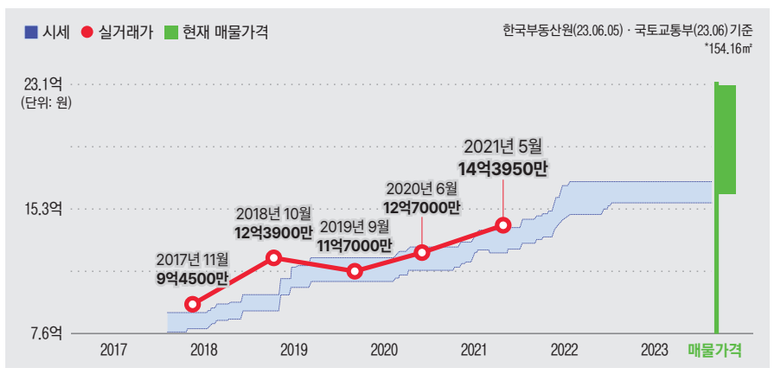
이 건물은 애경그룹과 군인공제회가 합작한 부동산개발업체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5097.57㎡(약 1542.01평), 대지면적 2838.1㎡(약 858.52평) 규모로 지어 2019년 2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처음 국민은행이 350억 원에 샀고 이를 다시 전지현이 매입했다.

LG전자 제품 등을 판매하는 LG베스트샵이 2019년 3월부터 건물 전체를 10년간 임차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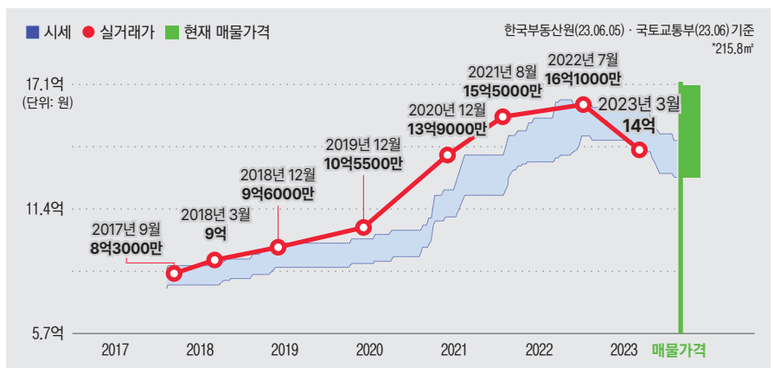
마곡엠밸리4단지

서울 강서구 마곡동 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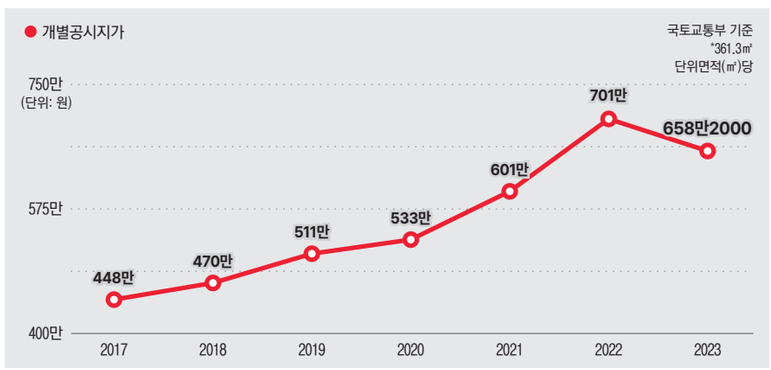
우장산롯데캐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45



서우빌딩

서울 강서구 등촌동 679-2



임성현 전)더클래스 효성 대표이사



임성현 전 더클래스 효성 대표이사는 브라질, 콜롬비아 등 해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다. 고려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1988년 코오롱그룹에 입사해 기획실을 거쳐 코오롱글로벌 ANC사업부 본부장, 코오롱모터스 대표 등을 지내면서 수입 자동차 업계 발전과 판매 신장을 이끌었다. 2020년 4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인 더클래스 효성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쌓아온 전문성과 증명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 적임자"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2003년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와 함께 고객에게 프리미엄 라이프를 선사해온 더 클래스 효성 대표이사로 취임해 영광"이라며 "고객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마케팅으로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송창섭 전)페어차일드코리아 대표이사



송창섭 전 페어차일드코리아 대표이사는 반도체 산업에 수십년간 종사한 반도체 전문가다. 198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시스템LSI 파워 반도체 공정개발 부장을 거쳐 페어차일드 코리아 신기술개발팀 상무 등을 지냈다. 2003년 페어차일드 코리아 부천사업장 총괄 수석부사장에 영입됐다. 수석부사장이었던 2007년 7월,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주관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0회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다양한 선진 자율안전보건프로그램으로 모범적인 안전보건경영을 지속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같은 해 10월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돼 "페어차일드 코리아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제조 및 기술 경쟁력 향상으로 고객에게 더욱 더 가치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페어차일드코리아는 반도체 기업인 미국 페어차일드의 한국 현지 법인으로 국내 최대 전력용 반도체 전문회사다.



구자철 현)축구선수



충주 중앙초교 축구부에서 선수 활동을 시작한 구자철은 2007년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프로에 입문했다. 이듬해 중국 충칭에서 열린 동아시아연맹선수권대회 중국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성인대표팀은 물론 U-18, U-20 등 각급 청소년 대표팀에서 활약한 그는 2009년 이집트에서 열린 FIFA(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8강 진출을 도왔다. 당시 FIFA가 선정하는 최우수선수 후보에 포함되기도 했다. 2010년 제주에서 K리그 도움왕에 올라 깜짝 준우승에 공헌한 구자철은 그해 제주를 떠날 때까지 88경기 8골 19도움을 기록했다. 이후 2010-2011시즌 후반기 독일 분데스리가 VfL 볼프스부르크를 시작으로 FC 아우크스부르크, FSV 마인츠 05 등을 거쳐 카타르 리그 알 가라파 SC, 알 코르 SC에서 활약했고 지난해 3월 제주로 복귀해 여전히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호남권 고속·일반철도 건설 3개 사업에 1935억 원 투입

호남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호남권 내 고속·일반철도 건설사업 등 3개 사업에 1935억 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속철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1523억 원)이며 일반철도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354억 원)과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58억 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광주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 목포까지 연결하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1523억 원을 투입한다.

2단계 중 광주송정에서 고막원까지 25.9km는 기존 호남선을 고속화(최고속도 230km/h)하는 구간으로 2019년 6월에 적기 개통했고 고막원에서 목포까지 44.6km은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7개 공구로 나누어 노반 공사를 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오송에서 목포까지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호남권 철도건설 사업 위치도. 국가철도공단

운행 가능하며 특히 무안국제공항은 전국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와 직접 연결돼 수도권 이남 지역은 물론 영남과 전남 동부권 이용객들의 접근과 편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은 보성역에서 목포 임성리역까지 82.5km를 단선으로 건설해 경부선과 호남선을 연결하고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354억 원을 투입해 2024년 개통한다.

현재 공정률은 90.7%로 노반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9년 단선 비전철에서 전철화로 사업계획이 변경돼 송변전과 전차선 분야 공정이 한창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에서 보성까지 이동시간이 현재 136분에서 64분으로 크게 단축되며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도망을 구축으로 영·호남 여객 및 물류 수송체계와 남해안 관광벨트 기 반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진주~광양 전철화는 총사업비 1683억 원을 투입해 진주에서 광양까지 복선비전철로 운영 중인 55.1km 구간에 전기기관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이달 개통한다.

사업이 개통되면 순천에서 삼랑진까지 158km 구간의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가 완성돼 열차 고속운행과 선로용량 증대 등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고 친환경 철도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안중출장소 신청사 2025년 준공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는 서부지역의 새로운 상징건물이 될 안중출장소 설계안에 '화양연화'라는 작품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안중출장소 신청사는 평택 서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증가하는 인구 및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미래 행정체계를 고려한 복합 행정거점 조성이 목적이다.

5월 안중출장소 설계 공모를 통해 총 9개 사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토문건축사사무소 외 1개 사의 '화양연화'가 최종 선정됐다.

당선작인 '화양연화'는 도시와 자연, 시민들과 더불어 청사의 여러 기능이 서로 사이좋게 조화를 이룬다는 주제로 미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업무 공간 모듈과 충분한 자연채광 그리고 환기가 가능한 외부 중정으로 친환경 사무실이 특징이다.

또한 안중출장소와 복합으로 건립되는


평택 안중출장소신청사 조감도. 평택시

도서관은 개방형 열람실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도서관으로 서부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중출장소는 9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평택 화양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조성되며 연면적 2만3481㎡·지하 1층~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한다.

시는 토문건축사사무소와 본격적인 안중출장소 설계에 돌입해 올해 말까지 시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계획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초 착공해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